

# WKBL 첼시 리 사태, 아직도 '모르쇠'

### 최 위원장 "재정위, 연맹을 제재할 권한 없다"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이 여자 농구계를 떠들썩하게 한 첼시 리(27) 사태에 대한 책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신승우 WKBL 총재의 위기 모면 성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WKBL은 지난 19일 등촌동 사옥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첼시 리 혈통사기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연맹 측의 잘못을 가리고 징계를 내리기 위한 자리다.

지난 5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연맹 차원의 잘못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연맹의 책임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신 총재는 "재정위든 기타 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날 열린 재정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리였다.

총재 산하 자문기구인 재정위는 말 그대로 총재에게 특정 인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보고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재정위는 연맹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첼시 리 사태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뒤 총재에게 의견을 전달

했지만 재정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총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6개 구단주들이 모이는 총회가 열려야 한다. 총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인사위원회 역시 총재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는 못한다. 앞서 열렸던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즉, 신 총재는 처음부터 첼시 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공약 속에는 정작 연맹 주장에 대한 시비비비는 포함되지 않았던 셈이다.

검찰 발표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고, 첼시 리의 선수신분을 승인해 준 연맹이나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졌다.

첼시 리는 영구제명됐고, 그의 지난 시즌 기록과 상상은 모두 취소됐다.

소속팀이었던 KEB하나은행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와 챔피언결정전 준우승 성적이 말소됐다.

준우승 상금 총 4500만원(플레이오프 3000만원·정규리그 1500만원)을 토해내

기로 했다.

또 오는 2016~2017시즌 외국인선수와 국내선수 드래프트에서 최하 순위를 받게 되는 불이익이 주어졌다.

첼시 리의 KEB하나은행 입단에 관여한 에이전트 2명에 대해서는 무기한 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하나은행 장승철 구단주와 박종천 감독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한종훈 구단 사무국장은 감봉 조치를 받았다.

연맹은 부모나 조부모 중 한국인이 있다면 국내 선수와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해외동포 선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연맹 역시 허술한 제도와 부실한 검증 시스템으로 이번 사태의 발미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신 총재와 연맹은 책임 회피를 하며 구멍이 담 넘어가듯이 이번 사안을 넘겨려 하고 있다.

제6회 WKBL 총재를 지낸 최경환(61)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경산)의 후광을 업고 총재직에 앉은 그는 여자농구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임기(2018년 6월)를 끝까지 채울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매제인 장병화는 농구와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인

물이지만 연맹의 특별고문직을 맡고 있다. 연맹에 있는 유일한 고문 자리다.

WKBL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고문은 연보수를 받지 않지만 회의에 참석하면 거마비를 받고,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따로 돈을 받는다.

그는 2014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 상임 감사로 임명됐지만 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해 '낙하산'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장 특별고문은 첼시 리 사태로 농구계가 뒤숭숭했을 당시 신 총재와 미국으로 넘어가 '진진 농구'를 함께 관장하는 '돈독함'까지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인 전 명예총재의 매제와 현 총재의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을 포함한 모두의 시선은 전날 열린 재정위의 결과나 발표에 집중되고 있었다. 하지만 신 총재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회의를 마친 재정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가진 뒤 바로 치파오 향했다.

한편 최소 역대 연봉을 받는 WKBL 총재에게는 제네시스 차량이 의전용으로 주어지며 시즌 때는 운전기사 제공된다. 운전기사 제공 방침은 신 총재가 취임한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 군산로드필드컵 SBS 프로볼링대회

2016 군산로드필드컵 SBS 프로볼링대회가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군산 코리아나볼링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의 대표 프로볼링 선수인 정태화 리듬체조 선수로도 유명한 신수지 등 전국의 유명 프로볼링 선수가 출전해 각 본선을 치러 1·2위가 TV파이널에 진출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볼링 종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현대인들의 여가 선용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운동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전국을 대표하는 우수 프로 선수가 참가하는 권위 있는 대회가 군산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볼링의 저변확대와 발전은 물론 최고의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법원, 김현중 손배 청구소송 내달 10일 선고

그룹 '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씨와 전 여자친구 A(32)씨가 밟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는 8월10일 선고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0일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8월10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쌍방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하다"며 "다양한 사실조회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집중적인 심리를 거쳐 형성된 심증과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와 A씨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김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가 유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정황을 들며 김씨가 임신 및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가벼운 실수를 두고 '폭행당했다'며 협박할 때 김씨가 느낀 공포심은 죽음과도 같았다"며 "이를 들기만 더 큰 협박을 당할까봐 겁먹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김씨의 폭행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는 본인의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는 자조위난(自招危難)"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근기자】

## “인생에서 최고로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 탁구 스타김경아, 후배들에게 조언

대한항공 소속의 김경아(39)는 신기에 가까운 '깍기'로 2000년대 초중반 한국 여자 탁구계를 풍미했던 인물이다.

올림픽 경력도 화려하다. 한 번도 나가 기 힘든 꿈의 무대를 세 번이나 밟았다. 메달도 두 차례 목에 걸었다.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는 단식 동메달을 따고,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단체전 동메달을 주기도 했다.

후배들에게 지리를 양보한 김경아는 16년 만에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올림픽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물론 후배들 격정에 맘 편히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림픽 대비 가상 실전 경기가 열린 지난 15일 경기 양평군 양평군실내체육관에서 만난 김경아는 경기장 한쪽에서 유심히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봤다.

김경아는 "3주 정도 남았는데 조금씩 모양이 잡혀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나설 여자 대표팀은 서효원(29·렛츠런)과 전지희(24·포스코에너지), 양하은(22·대한항공)으로 구성됐다. 앞선 두 대회와는 달리 올림픽 유

경험자가 한 명도 없다.

경험이 없다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김경아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긴장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알고 있다. 그것이 경험을 갖고 있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습을 꼽았다.

김경아는 "탁구대 앞에 서면 무조건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후배들이 이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으면 한다"면서 "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 긴장된 상황에서 누가 더 빨리 벗어나느냐가 관건이다. 연습을 많이 하고 나서 긴장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나서는 선수들은 긴장감을 잘 모를 것이다. 순간적으로 확 긴장이 될 때가 있다. 그때 빨리 헤어 나와서 자기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자 대표팀의 목표는 단체전 메달권 진입이다.

상황은 그리 여의치 않다. 예전에 비해



전체적인 기량이 떨어지는데다 경쟁국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다. 4강 시드를 배정 받지 못한 것 역시 악재로 꼽힌다.

김경아는 "어린 선수들이 있고 올림픽 경험이 다 없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시도도 불리하게 배정을 받았는데 8강에서 큰 고비가 한 번 올 것 같다. 그것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끝으로 김경아는 후배들이 부담을 덜고 자기 기량을 맘껏 펼칠길 희망했다.

김경아는 "인생에서 최고로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막상 경기에 나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순간에 몸을 맡겼으면 좋겠다. 무이자정에 빠진 것처럼 그렇다면 분명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민근기자】

### 이민기, tvN 드라마 '내일 그대와' 출연 무산

배우 이민기(29)의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내일 그대와' (연출 유재원, 극본 허성혜) 출연이 최종 불발됐다.

소속사 굿엔터테인먼트는 20일 "이민기가 출연을 검토 중이던 드라마 '내일 그대와'에 출연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소집해제 후 여유를 갖고 차기작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vN 또한 이날 "이민기의 출연이 무산됐다. 애초에 출연이 확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차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민기는 지난 2월 지원들과 부산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에 대한 성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산 바 있다.

한편 '내일 그대와'는 시간여행자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물이다. 배우 신민아가 여주인공 물망에 올랐으며, 내년 초 방송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